



# 체조 양학선,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광주체고〉

## 근력·순발력 탁월...도마 부분 잠재력 무궁무진

## 대표 선발전 '옆으로 세바퀴 틀기' 신기술 첫 선

한국 체조의 기대주 양학선(18·광주체고)이 도마에서 세계정상급 기량을 뽐내며 11월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그는 지난날 말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0 기계 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체조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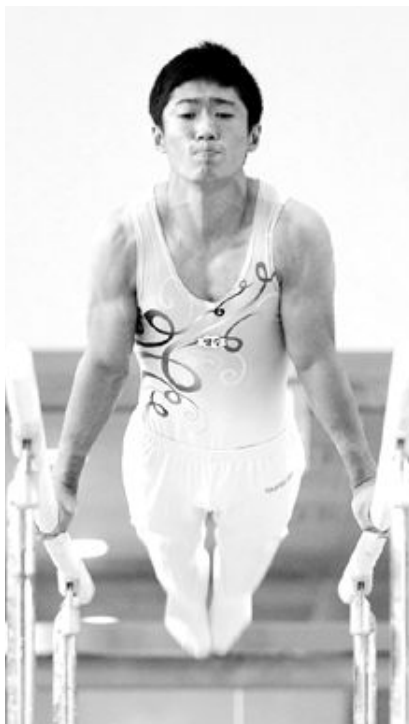
도마에서 아직까지 세계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도약대와 받침의 탄력으로 공중으로 솟구쳐 앞으로 돌면서, 옆으로 세 바퀴를 트는 기술은 양학선이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옆으로는 세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만을 트는 게 최고 난도였다.

양학선을 지켜보는 조성동 대표팀 감독의 표정은 기대감이 넘쳤다. 조성동 감독은 "근력과 순발력이 탁월한 선수"라

고 했다. 심판으로 참여했던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 은메달리스트 여흥철 교수(경희대)는 "나이에 비해 기술수준이 뛰어나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칭찬했다.

양학선은 앞서 지난달 4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끝난 2010 재팬컵 국제체조대회 단체전에 출전, 장기간 도마에서 16.15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초등학교 때부터 양학선을 지도해오 오상봉 광주체고 감독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주중목이 도마와 마루에 한점과 있지만 국제경험을 쌓으면서 자신감과 리더십을 보강한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



체조 선수 양학선

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학선은 10월 17일부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제42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을 타진한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양궁 "적수가 없다"

## 월드컵 전종목 예선 1위... '드림팀' 위용 과시

올해 새로 구성된 한국 양궁 대표팀이 국제양궁연맹(FITA) 3차 월드컵 남녀 전 종목에서 예선 1위를 기록하면서 '드림팀'의 위용을 자랑했다.

김보정(청원군청)은 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오그덴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부 개인전 예선에서 668점을 쏘아 1위에 올랐다.

대표팀 동료 윤옥희(예천군청)와 기보배

(광주광역시청, 이상 665점), 주현정(664점, 현대모비스)은 차례로 2~4위에 올랐다.

임동현(청주시청)은 남자부 개인전 예선에서 683점을 기록해 올해 세계랭킹 1위 브래드 엘리슨(680점, 미국)을 가볍게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임동현은 자신이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세웠던 세계기록 687점에 4점차로 접근하는 성적을 내면서 정상급 컨디션을 보여

줬다. 오진혁(농수산출소공)은 678점을 기록해 3위에 올랐고 고교공사 김우진(충북체고)은 673점으로 5위로 뒤를 이었다. 이창환(두산중공업)은 661점을 쏘아 16위로 다소 뒤떨어졌다.

기보배, 김보정, 윤옥희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이어 벌어진 단체전 예선에서 1천 998점을 쏘아 중국(1천 936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로 토너먼트에 합류했다.

임동현과 김우진, 오진혁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 예선에서 2천 343점을 쏘아 대회 우승을 노리는 주최국 미국(2천 7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은 오는 8일 열린다. /연합뉴스

# 이세돌 6개월 연속 랭킹 1위

## 이창호·최철한 공동 2위

이세돌 9단은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8월 랭킹에서 지난달보다 18점 오른 9천 761점으로 1위에 오르며 6개월째 수위 자리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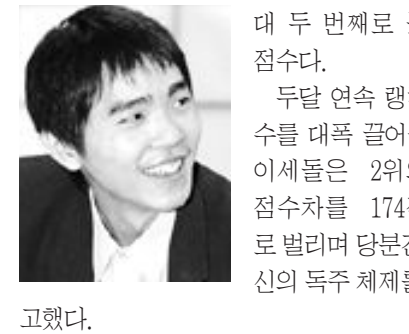
이세돌은 7월 5일 후지쓰배 결승에서 국제

9단에 쓰러진 패배를 당했지만 6연승으로 농심신리만배 대표선수로 선발됐고 한국기원에서 2연승으로 랭킹을 올리는 등 7월 한달 사이로 11승 2패의 호성적을 거두며 1위를 유지했다.

9천 761점은 프로기사 랭킹이 현재의 레이팅시스템으로 바뀐 2009년 1월 이후, 2009년 2월에 기록한 자신의 9천 811점에 이어 역

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다. 두달 연속 랭킹점수를 대폭 끌어올린 이세돌은 2위와의 점수차를 174점으로 벌리며 당분간 자신의 독주 체제를 예고했다.

지난달 공동 3위였던 이창호 9단과 최철한 9단은 나란히 9천 587점으로 나란히 한계 단식 상승해 공동 2위가 됐다. /연합뉴스



이세돌

# 올 PGA 챔피언십 우승자 만찬은 '한식 잔치'

## 디펜딩 챔피언 양용은이 정해

지난해 양용은(38)이 아시아 첫 메이저 챔피언십에 올랐던 PGA 챔피언십 골프대회의 오랜 전통인 '우승자 만찬(Champion's Dinner)'이 '한식 잔치'로 열린다.

12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위스콘신주 클러의 위슬링 스트레이트 골프장에서 시작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제 92회 PGA 챔피언십을 앞두고 열린 '디펜딩 챔피언'인 양용은이 이번 대회 우승자가 메뉴를 정하는 것이 관례다. '디펜딩 챔피언'의 이름으로 만찬 참가자를 초청하고 만찬 메뉴와 선물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



양용은

란시스코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에서도 양용은을 만찬 때 주위에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양용은이 이번 만찬을 한식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왔다. /연합뉴스

양용은은 4월 중국에서 열린 볼보 차이나오픈 우승을 차지한 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와 만나 PGA 챔피언십의 우승자 만찬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의 지원을 요청해 세부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우승자 만찬에는 한식 세계화추진단 명예총재를 맡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있어 이채롭다.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소외계층돕기 행사에서 김윤옥 여사를 만난 가수 이승철 씨가 "올해 PGA 챔피언십 환경 만찬을 양용은이 한식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없겠느냐"고 물었고 김 여사가 이를 승낙했던 것이다. 이승철 씨는 양용은과 절친한 사이이다. /연합뉴스



## KIA 양현종 '7월 월간 MVP'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 5월 광주 밝은안과2이 시상하는 7월 월간 MVP를 수상했다. 양현종은 7월 한 달간 3승 1패 4.88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양현종은 시상금 100만원 중 불우이웃돕기 적금으로 50만원을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김병현 '돌연 귀국' LG 2군 구장 나타나

미국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야구 선수 김병현(31)이 귀국했다. 김병현은 5일 LG 트윈스의 2군 경기장이 있는 경기도 구리의 챔피언스파크를 찾아가 김기태 LG 2군 감독과 이만수 SK 2군 감독을 만났다.

이후 SK의 퓨처스타크 경기를 관전하다 박명환 등 2군에 있는 LG 선수들과 만나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김병현은 "한국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다"면서 "오늘은 광주일보 선배인 김기태 감독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미국 생활을 접고 들어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병현은 "지금 잠시 쉬고 있다"면서 "어느 쪽으로든 복귀는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스프링캠프에서 방출된 김병현은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메이저리그 계약을 했으나 메이저리그 진입에 실패하며 팀을 떠났다. 이후 지난 5월 미국 독립리그인 골든스테이트블리그의 오프닝 카운터플레이어스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귀국하면서 국내 복귀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 KIA 사인구 500세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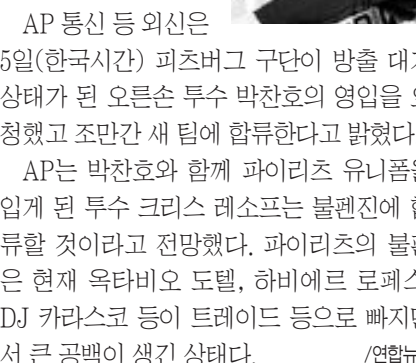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1이닝 사이클링 홈런 등 신기록 달성을 기념해 사인구 세트를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사인구 세트는 지난달 29일 사직 롯데전에서 작성한 기록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사인구(인쇄) 2개와 밧집,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1만 8천원(배송비 포함)이며 500세트 한정으로 6월 오후 구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판매된다.

사인구 세트는 한 이닝 최다 타점(7타점)을 기록한 이용규의 사인구와 한 이닝 팀 사이클링 홈런 신기록을 달성한 이용규·채종범·최희섭의 사인구 함께 담겨 있는 사인구 등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 박찬호, 피츠버그에서 새 출발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서 방출된 박찬호(37)가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AP 통신 등 외신은 5일(한국시간) 피츠버그 구단이 방출된 박찬호의 영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리츠의 불펜은 현재 육타비오 도넬, 허비에르 로페스, DJ 카라스코 등이 트레이드 등으로 빠져나간 공백이 생긴 상태다. /연합뉴스



박찬호

산행 안내
8월 7일(토)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7일) 7시 30분 출발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7일) 7시 30분 출발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7일) 7시 30분 출발

8월 8일(일)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8일) 7시 30분 출발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8일) 7시 30분 출발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8일) 7시 30분 출발

8월 9일(월)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9일) 7시 30분 출발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9일) 7시 30분 출발
▶광주전남도자연휴양림 37년만의 개장된 만경호(8월 9일) 7시 30분 출발

분할합병공고 및 주권지출공고
주식회사 신원(이하 "갑")과 태평양(이하 "을")은 2010년 8월 4일 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과 (을)가 합병하여 (갑)과 (을)의 전 재산과 부채를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 등 본 공고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청에서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세청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병을 행할 것으로 결정함을 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갑) 주식회사 신원
경기도 수원시 팔당동 506-7
대표이사 이철영
(을) 태평양(주)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갈매성리 342-8
대표이사 이종원

분할합병공고
(주)신원(이하 "갑")과 태평양(이하 "을")은 2010년 8월 4일 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과 (을)의 전 재산과 부채를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 등 본 공고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청에서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세청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병을 행할 것으로 결정함을 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갑) 주식회사 신원
경기도 수원시 팔당동 506-7
대표이사 이철영
(을) 태평양(주)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갈매성리 342-8
대표이사 이종원

광주日報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FAX:(062) 227-9500
분할합병공고
(재량자의 및 주권지출공고)
경주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2010년 8월 4일 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 재산과 부채를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 등 본 공고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청에서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세청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병을 행할 것으로 결정함을 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갑) 주식회사 신원
경기도 수원시 팔당동 506-7
대표이사 이철영
(을) 태평양(주)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갈매성리 342-8
대표이사 이종원